

라스베가스 아름다운 교회

Oct 16, 2018



목회자 후기

우리가 평소에 놓치기 쉬운 사실은 성경이 그 자체로 우리에게 설교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이다. 목사님들이 성경을 풀어서 전해주시는 설교도 유익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그대로 가감 없이 들려질 때 가장 강력한 설교가 될 수 있음을 이번 오디오 성경 읽기를 통해서 깨닫게 되었다. 특별히 모세오경 중에서 신명기의 말씀은 그 자체가 이미 모세의 설교이기 때문에 그 설교가 시대를 넘어서 우리에게 선포되어짐을 경험할 수 있었다. 집에서 혼자 말씀을 묵상할 때 보다 다 함께 모여서 말씀을 함께 들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선포되어지는 설교말씀으로 들을 수 있었다.

오디오 성경읽기가 우리에게 주는 또 다른 유익은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을 더 갖게 되었다는 점이다. 평생 교회를 다녀도 성경 일독조차 하지 못하는 성도님들이 많은 데 성경을 읽는 것이 우리의 삶을 얼마나 풍요롭게 하는지를 깨닫게 해주는 시간이었다. 신앙생활의 핵심중의 핵심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순종하는 것임을 다시 한번 가슴에 새기고 신명기의 말씀대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이 복된 삶으로 변화된다는 것을 깊이 깨닫는 시간이었다.

이렇게 귀한 기회를 주신 교단 관계자 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박성균 목사

평신도 후기

모세오경 오디오 성경 통독을 마치고

박정희 (라스베가스 아름다운 교회)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이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앎이라.(고린도전서 15장 58절 말씀)

육개월 동안 목장 식구들과 함께 오디오 성경 읽기를 통해 모세오경까지 통독하게 되었다. 원래 계획은 성경 66권을 다 통독하는 것이었는데, 숨을 한번 고른 후 내년엔 다시 이어서 통독을 마무리하기로 결정했다.

해마다 사순절 기간엔 온 성도들이 각자 주어진 일정표에 따라 신약통독을 하고 메신저로 서로 받은 은혜를 매일매일 나눠보곤 했지만, 교단의 권유를 받아 이번에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들이 일정한 시간에 함께 모여서 오디오로 말씀을 듣는 시간은 또 다른 유익과 은혜가 있었다.

평균 연령 70세가 넘는 목장 식구들과 함께 매주 토요일마다 모여서 귀로 들리는 말씀을 경청하며 눈으로 말씀을 따라 읽어가니 하나님을 알아가는 설렘과 깨달음의 기쁨은 혼자 읽을 때보다 더욱 큰 즐거움과 따뜻함이 가슴 속에 자리했다.

오랜 세월 신앙생활을 하고 장로의 직분까지 받으셨던 장로님께서 평생 한 번도 성경을 통독해 보지 못했다면서 적극적으로 오디오 성경 읽기에 참여하셨고, 매주 성경읽기를 마친 후 서로 받은 은혜를 나누는 시간엔 떨리는 목소리로 깨달음을 나눠 주셨다.

“들으라 이스라엘이여~~”

마치 오디오 성경을 듣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시는 듯, 한 말씀 한 말씀을 마치면 우리도 모르게 “아멘아멘.” 했다.

주 예수 그리스도로 완성된 그림자로서의 율법 모세오경.

창조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족속을 택하시고 그들을 당신의 백성으로 이끄시고 인도하사 친히 언약하시며 이 모양 저 모양으로 개입하신 하나님의 행적들.

죄악을 저지른 이스라엘 백성들을 긍휼히 보시고 구리뿔을 세워 백성들을 구원해 주셨던 것처럼, 그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친히 내 죄를 짊어지고 죽으심으로 나에게 영생을 주시고 부활 소망을 갖게 해주신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의 역사하심.

그것은 살았고 면면이 이어져 내려온 그분의 통치 역사들이기에 바로 그의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전율이요 은혜일수 밖에 없음이니.... 들으라 이스라엘아! 너희를 이끈 바로 나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하고 기억하며 나를 기념하라!! 아멘아멘!!

이번 오디오 모세오경을 통해 창조주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을 더욱 느낄 수 있었고, 하나님의

예정하심과 구속과 심판이란 복음 앞에 두렵고도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더욱 경외하게 되었으며, 무엇보다도 송이꿀보다도 단 하나님의 말씀을 오롯이 누리는 즐거움은 그 무엇보다도 바꿀 수 없는 은혜요 기쁨이었다.

“통독을 하였더니 막연했던 성경이 마치 그림처럼 머릿속에 그려지며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고 그 시대가 온몸으로 느껴진다.”고 고백하시는 우리 목장 식구들.
창조주요 세상과 만물의 주인이 되신 내 주 여호와 하나님께 순종하면 복이요 불순종하면 저주라는 확실한 진리를 마음판에 새기며, 또한 부디 우리 자녀들이 에발 산 저주와 그리심 산의 축복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이야말로 오직 유일하신 주 하나님이심을 바로 알고, 주 앞에 대면하듯 그리 살길 간절히 소망하게 된다.

내 삶의 주인이신 나의 하나님.

구원받은 내가 이 땅에서 주님 오라 하시는 그 날까지 주님 기뻐하시는 순종의 삶, 감사의 삶, 나누고 섬기는 삶. 주님 닮아가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모든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하나님 받으시옵소서. 아멘!~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 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아멘.

(신명기 5장 10절 말씀)

오디오 성경 통독을 통해 충만한 은혜의 시간을 갖게 해주신 교단에 감사드립니다.

모세오경을 통독하면서 강력한 느낌들 아름다운 고리 장빙자 기사

나는 30년이 넘도록 신앙생활을 하면서 성경을 읽고 쓰고 해왔었다
나중대로 열심을 내며 성경말씀을 많이 읽고 있다는 여의식은 자부심이
타성이 있어 있었다. 특장별로 모여 성경통독을 해야 된다는 제의를 받고
좀 부담감을 느끼고 망설였다. 성경을 많이 읽었던 나는 별 기대없이 모임
이 창여 리기로 마음 먹었다. 한자리에 모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
이 외로운 말씀도 많았지만 나의 기대치에는 많이 부족했다. 하나님께서는
나의 고난한 마음을 깨뜨리려고 나의 생각을 두렵게 만드신 것 같은 느낌이
들었다. 창여 소중할 시간이었다. 조용한 마음에 좀더 빨리 들으려면 하고 말
씀을 시간운 양겨 보려고 인간됨을 쓰다 문득 안된다는 생각이 스쳐갔다.
함께하는 시간이 중요함을 느끼고 아들의 말씀의 잔치속에 배려들이 기
쁨의 시간이 흘러갔다. 온 천지만물은 지으신 그 속에 모든 것들을 다 지으신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 사역이 정력하고 계심을 알 수 있게 되고 위대하신
그 능력의 소원이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주권이 드러나 있음을 강하게 느
낄 수 있었다. 이스라엘 민족의 출애굽에 대한 영적 배경은 신약 성경과
상통하며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이 가까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방랑했던 사건이며 이스라엘 율법과 성약을 갖춘 이렇듯 신령
국가로의 준비하게 된 것을 애굽의 노예 상태로 부러 율법들을 들은
때의 느낌은 애굽 땅 동쪽 끝의 집에서 안드라이 너 너의 하나님 여로
아름다운 강력한 말씀들이 십계명을 주셨다.

나는 십계명을 알아나 잘 지켜왔는가. 십계명이 나의 뇌리를 스쳐 간여가
말았다. 지난보면 아~아~ 그러나 앓구나 라는 깨달음이 많이 들은 한다.
그동안 많은 세월이 흘러가게 되고 이제 눈이 어두워 성경 말씀을 묵상
하기도 어려운 때가 되었으니 세월을 아끼지 못한 죄스러움이
내 마음을 압박했다. 또한 예물이 대한 말씀을 통해 누구든지
어둠에 예물을 드리게는 생육 중이신 소나 양으로 예물을 드릴지라도
우리는 신앙의 예수님의 보혈의 피를 예표함이인 예수는 우리의 범죄

향을 위해 내어 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살아
 나셨느니라 (롬 4:25) 인간의 생사 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계획하시고 예비하신 놀라우신 주님의 나라가 평안함을 누리지 않을 수 없다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마치고 죽음을 목전에 둔 모세가 모압강 등변
 모압 형제에게 가나안 침입을 앞둔 이스라엘 씨족들에게 주셨던 모든 영광을
 풍요롭게 세웠듯이 약속된 땅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한 광야에서 왜 하다가
 죽은 권능이신 위인은 매복과 광야에서 행하신 놀라우신 이적과 능력을
 모든 귀신 여위와를 믿지 아니한 그들의 불신앙 때문 이었나
 이적이었던 기동한 민족으로 선택되었기 때문에 죄악 불의를 용납할 수
 없는 집안이라 그들의 심에 항상 병들어 인주되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된 땅에 하나님의 법도와 규례를 지켜 행하게 됨에 그들이 누게
 될 여러 풍족함이 임치된 일과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축복을 누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그곳에 널리 생령 한 모든 무상들을
 잘 지키 지키 레야 라야 고후라 일나

모세는 3편의 설교를 통하여 하나님의 심리는 설명했다

1. 불신앙에 대한 하나님의 도덕적 심판 훈계가 마른 하나님의 고운 손톱이 즉
 복을 불순종이 죄를 가짜나 중의 고통을 가져다 준다
2. 십계명을 중심으로 한 이스라엘의 도덕적 의무 귀신 제사 심인조 권이
 대한 교훈으로 예악
3. 즉 모세는 이스라엘이 가까운 장래에 경험할 축복과 죄주 그리고
 이 장래에 임하는 포로 사역의 위화분 예견한 것이다 한편 이부분
 예는 여러누이러 주제의 임명 모세의 고백사 모세의 찬사 등의 역
 사적적 사실들에 대한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생령 말씀의
 권위와 모세구경의 비영은 살펴 보며 위대하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풍부해지고 더욱더 말씀을 가까이 할 수 있는
 영성이 생겨남으로 하나님께 더 가까이 할 수 있으므로 기쁨이
 증대하리